



## 2분기 세계 PC시장 고속성장

지난 2분기 세계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이 유럽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15% 성장, 3973만대의 출하량을 기록했다고 시장조사기관 IDC가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럽 PC 시장은 이 기간 중 거의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IDC 로렌 로베르드 이사는 "유럽에서의 공격적 판촉 등으로 유럽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PC 교체 수요는 아시아를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IT 회복세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PC 교체 수요도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별 실적에서는 델이 18.3%로 1분기에 이어 1위를 지켰으며 휴렛팩커드(15.7%), IBM(6.5%), 후지쯔(3.8%), 에이스(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도 2분기 세계 PC시장 판매 실적을 발표, "작년 동기보다 13.3% 많은 4280만대가 출하됐다"고 밝혔다. 가트너는 IDC와 달리 데스크톱·노트북과 함께 x86 서버도 PC에 포함해 통계를 내고 있어 두 기관간 세계PC 출하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트너 조사에서도 델이 HP를 제치고 최고의 출하 실적을 기록했다.

## 2009년 세계 휴대폰 가입자수 25억

2009년 세계 휴대폰 가입자 수가

25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넷은 시장조사기관 인스탯/MDR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서 세계 휴대폰 가입자가 올해 말 15억명에서 5년 후에는 25억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시장의 성장을 가입자 증가세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유럽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2009년에 WCDMA 방식 가입자 수가 GSM 방식을 추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SM 방식 가입자는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2008년부터 WCDMA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노키아, 2분기 매출 5% 감소

핀란드 이동전화 생산업체 노키아는 15일 경쟁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분기에 매출이 5% 감소했다고 밝혔다.

3~6월 노키아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한 66억 4,000만 유로(8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감소 규모는 시장분석가들도 예측해온 수준으로 분석된다.

노키아의 순이익은 6억 2,400만 유로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14% 증가한 7억1,200만 유로를 기록했다.

## 노키아, 2분기 휴대폰 시장 점유율 축소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노키아의 2분기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모토로라, 삼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30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키아의 2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29.3%에서 27.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노키아의 점유율은 최근 9개월 사이 34%에서 6%포인트 가량 줄었다.

반면 2위 모토로라는 13%에서 15%로 비중을 늘렸고 3위 삼성전자는 11%에서 14%로 점유율을 확대, 올해안에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또 LG전자도 점유율을 5.5%에서 6.1%로 늘리면서 5위로 올라섰다.

IDC의 데이비드 린살라타 애널리스트는 "저가 제품 중심의 보수적인 전략이 노키아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삼성과 LG전자는 기술혁신을 통해 카메라폰 등 수요에 잘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도 노키아 점유율이 1년 만에 36%에서 28.9%로 하락했으며 2위 모토로라는 같은 기간 13.9%에서 15.4%로 점유율을 늘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0.5%에서 14.5%로 점유율을 확대했고 LG전자도 점유율 6.3%를 기록, 지멘스(6.6%)에 바짝 따라붙었다.

스트래티지에널리틱스는 "전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가량 늘었다"며 "노키아 매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반면 삼성은 북미 지역 수요 증가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 노키아, 네트워크 부문 분사설 일축

노키아가 최근 이탈리아의 한 언론이 보도한 네트워크 부문의 분사설을 일축했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노키아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 아자 수오미넨 노키아 수석 대변인은 “노키아 네트워크는 노키아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키아가 인력감축과 R&D 비용을 축소한다는 보도 내용도 부인했다. 노키아는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경제신문 ‘파이난자 메르카티’는 “노키아가 네트워크 부문을 200억유로에 시스코나 루슨트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키아 네트워크의 통신부문 대표인 토마스 은슨은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핀란드의 통신분야 애널리스트들도 생산 기반기설을 강화하겠다고 노키아가 오히려 네트워크 부문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키아의 네트워크 부문은 전체 사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 대만, TFT-LCD메이커 2분기 실적은 호전

대만 TFT LCD 제조업체들의 올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한 350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전자시보가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 기업들이 2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확대와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3분기 실적을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기업들의 재고는 현재 약 40만 장에 달하지만 제조업체들이 5세대 생산설비를 늘리는 3분기에는 재고자산 규모가 더욱증가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3분기에는 순이익이 200억 대만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美, 이동사업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32개 주 정부가 대형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소비자 권리 신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C넷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싱귤러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PCS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시 서비스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2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동의했다. 이외에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매자가 3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 환불해줄 것 △마케팅 활동시 요금과 서비스 제한 사항을 명시할 것 △사업자들은 주 정부에 소비자 교육비용으로 5백만달러를 지불할 것 등이다.

켄 살라자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은 “이 협약은 32개 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시 요금, 기간,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섬머스 테네시주 검찰총장도 “이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사는 곳, 일하는 곳 등에서 통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3,890만, 싱귤러 2,540만, 스프린트 2,100만 등 총 가입자 8,530만명으로 미국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

다. 또한 노스 캐롤라이나, 아칸사스, 일리노이, 캔사스,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미국 50개 중 32개 주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주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도 소비자 권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다. 지난해 기업진흥협회(BBB)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신고건수에서 이동통신 산업은 미국 전체 산업 중 자동차 산업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달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 만족지수에서도 이동통신 산업은 케이블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산업으로 조사되는 등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 세계 TFT LCD 장비 시장 51% 성장 전망

시장조사기관인 인포메이션 네트워크(IN)는 23일 올해 세계 TFT LCD 장비시장이 작년대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N은 TV,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등 LCD 패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LCD장비 업계 매출액이 작년보다 51% 늘어난 4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매출은 58억달러로 올해보다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IN은 내다봤다. IN의 로버트 카스텔라노 사장은 “LCD업체들이 5, 6, 7세대 설비를 내년초부터 가동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이들 수요로 인해 장비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BOE하이디스가 5세대, 치메이가 5.5세대, AU옵트로닉스와 청화픽처티브 등은 6세대, 삼성전자가 7세대 라인 가동을 준비중이라고 IN은 소개했다.



## 세이코엡손, 반도체 위탁생산 30% 늘려

일본의 세이코엡손이 반도체 외부 위탁생산비율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이코엡손은 현재 10%에 못미치는 외부 생산위탁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위탁생산업체로는 대만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주문을 시작한 TSMC에 이어 신규 위탁처도 발굴할 예정이다.

세이코엡손이 위탁생산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주력인 휴대폰 액정화면용 반도체의 공급이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 장착 휴대폰용 TFT LCD 구동 IC 및 화면표시 제어 LSI 등의 위탁생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세이코엡손은 이미 올해에만 약 100억엔을 투자해 야마가타현 사무소와 생산 자회사의 생산 설비를 증강한 바 있다. 단지 1,000억엔 규모가 소요되는 신공장 건설은 부담이 큰 만큼 위탁생산을 통해 부족한 물량(월 2~3만장)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 소니에릭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소니에릭슨의 2분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소니에릭슨은 2분기 8,900만유로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소니에릭슨은 작년 동기 8,800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세전이익은 1억1,300만유로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9,700만유로를 훨씬 상회했다.

이 기간 단말기 판매는 작년 동기 670만대보다 55% 늘어난 1,040만대였고, 매출액은 15억400만유로를 기록했다. 소니에릭슨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판매증가가 좋은 실적을 거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니에릭슨은 올해 세계시장의 단말기 총 판매대수 전망을 기존 5억5,000만대에서 6억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 소니, 소니인텔리전스다이나믹연구소 설립

소니가 전혀 새로운 개념의 로봇 만들기에 나섰다.

일본 소니가 뇌 과학을 응용해 스스로 생각해 움직이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소니인텔리전스다이나믹연구소'를 최근 설립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소니는 이 연구소에서 약 350대 컴퓨터를 연결한 대규모 계산시스템과 뇌 과학의 최신 이론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스럽게 거래가 가능한 로봇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 모델은 소니의 인간형 로봇 '큐리오'로 정해졌다.

소장으로 취임한 도이 도시다다 소니 특별 이사는 "5년 후에는 인간과 대화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 로봇 '아이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 소니, 스스로 말하는 로봇 개발 연구소 개설

일본 소니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의 개발을 위해 '소니인텔리전스다이나믹스 연구소'를 28일 설립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약 350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대규모 계산 시스템과 두뇌 관련 과학의 최신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로봇의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나와 있는 인간형 로봇은 미리 저장돼 있는 움직임이나 회화 내용이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형'에 불과하다.

이 연구소는 애완견 로봇 '아이보'의 개발자인 도이 도시다다 소니 이사가 소장으로 이끌게 된다. 연구는 소니의 인간형 로봇 '큐리오'를 모델로 추진되며, 두뇌 관련 연구 기관인 이화학연구소, 국제전기통신기술연구소 등이 협력할 예정이다.

도이 소장은 "5년 후 사람들이 싫증을 갖지 않고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는 있는 로봇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싱가포르, BT산업 아시아 거점 부상

싱가포르가 세계 바이오테크놀로지(BT) 산업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니혼게이지사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미국의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싱가포르에 잇따라 공장을 준공했으며 스위스 노바티스, 일본 미쓰이물산 등이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는 등 싱가포르가 BT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락소는 지난달 1억 싱가포르 달러(약 64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확장했다. 기관지 치료약 등에 사용하는 원약 생산이 목적이다. 내년 중에는 의약기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화이자도 6억 싱가포르 달러(약 3,840억원)를 들여 아시아 최대 의약품원약공장을 개설했다.

글락소와 화이자의 공장이 진출



한 '투아스바이오메디칼파크'는 지난해 미국 머크 및 셰링플라우 등이 각각 1,100억원과 2,5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 기업들이 잇따라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것은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등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0년 바이오 및 의약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인 제도 개혁과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R&D 거점인 '바이오폴리스'를 개설해 5개 국립연구기관을 이전시키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오는 2005년 자국내 의약품 생산액이 120억 싱가포르 달러(약 7조6,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들도 새로운 산업으로서 바이오에 주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바이오밸리말레이시아'를 건설 중이다. 2005년까지 기본 준비를 마치고 이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외국계 기업 설비를 유치할 계획이다. 태국도 농산물 계능 연구 등을 추진할 농업바이오센터의 설립을 검토 중이다.

### 인텔 "4기가 데스크톱 프로세서 출시 연기"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은 데스크톱 PC용 4GHz 프로세서 출시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로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우존스 등에 따르면 인텔의 로라 앤더슨 대변인은 이날 4GHz 프로세서의 출시 연기를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앤더슨 대변인은 출시 연기에 대해 "품질과 물량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텔은 지난 19일에도 '알비스' 출시를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분기 말에는 신제품 칩셋인 '그랜즈데일'을 제조상 결함으로 리콜하기도 했다.

### 日, 전자부품업계 실적 호전

일본 전자부품업계가 디지털가전 기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교세라, TDK, 닛토전공, 일본전산 등 전자부품 메이저 4개사의 1분기(4~6월) 실적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DK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가을 이후 디지털경기의 감속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업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교세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한 347억엔을 기록했다. 파인세라믹사업 부문의 LCD 제조장치용 부품, 전자디바이스사업 부문의 휴대폰용 콘덴서 등이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났다.

TDK는 주력인 PC용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용 자기헤드의 매출이 줄었지만 디지털가전용 부품은 순조로운 판매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영합리화 효과도 있어 영업이익은 50~60% 늘어났다.

닛토전공, 일본전산 등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토전공은 샤프사 전용 LCD TV용 광학필름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 일본전산의 경우 디지털 가전용 광디스크장치 모터 및 팬모터의 매

출이 크게 늘었다. 또 연초에 자회사로 편입한 산쿄정기제작소의 수익 개선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조에도 불구하고 각사들의 향후 실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않다. 실적 상향 조정과 관련 TDK는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계는 부품가격 하락 추세와 관련해 "현재 하락율이 5% 정도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10%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 日,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 잇따라 출시

일본 기업들이 정보유출 방지 및 차단 시스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생기업인 하밍헥스와 포커스시스템즈, 미국 벤처기업인 아트르아테 크놀리지 등은 사내 PC의 조작 상태나 부정 접속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빈발하는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이 최근 '정보통신 사회에서 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밍헥스는 사내 LAN에 접속되어 있는 PC의 자료 열람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시스템 관리자에 상황을 통지하거나 지정된 파일에 경고문을 써넣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포커스 시스템즈는 서버에 들어 있는 중요 파일에 대한 불법 접속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았다. 이 시스템은 접속 시간이나 접속한 파일을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보존하는 지의 여부도 자동 조사할 뿐 아니라 불법 이용자가 증거 인멸을 위해 소거한 파일 등도 자동 복구할 수 있다.

아트리아 테크놀로지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지문 인식 칩을 내장한 단말기를 올 가을부터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미 기술 지원 센터를 도쿄 시나가와에 설립했다. 이 회사의 지문 인식 칩은 타인을 오인할 확률이 0.001%다.

### 일 통신업계, ADSL 통신속도 잇따라 올려

일본 통신업계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선(ADSL) 서비스의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 지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다음 달부터 ADSL 통신속도를 최대 초당 47~50Mb까지 끌어올려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광통신망 서비스 수요에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일본의 ADSL은 동영상 전송 등을 즐길 수 있는 브로드밴드 통신 회선으로서 약 1200만 건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앳카네트웍스, 이엑세스 등은 하향대역의 전송속도를 현재의 최대 초당 40Mb에서 47Mb로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소프트뱅크BB도 현재의 45Mb를 50Mb로 높인다. 그러나 3사 모두 요금은 현행 수준을 고수기로 했다.

NTT동서지역회사도 현행 40Mb를 47Mb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와 함께 상향대역의 전

송 속도도 기존 1Mb에서 2~3Mb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현재의 광회선은 상·하향 대역 모두 최대 통신속도가 매초 100Mb이며 가입건수는 5월 현재 132만 8,000건이다.

NTT동서의 경우 광회선으로 연내 120만건의 신규 고객을 확보해 누계 가입자를 200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 日, NTT의 IP화상전화



일본 NTT가 8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갖춘 IP 화상전화 '플렛스 폰 VP1000(Flet's Phone VP10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광통신망이나 ADSL 네트워크를 통해 초당 30프레임의 영상 이미지 송·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9월1일부터 5만9,800엔(미화 555달러)에 시판될 예정이다.

### 중국, 인터넷 성장세 둔화 조짐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화 조치와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의 보급 확대로 중국 인터넷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CINIC)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8,700만명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9.4%, 전년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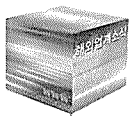
에 비해서는 28%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는 지난 1997년 말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던 중국의 인터넷 시장을 감안하면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전년대비 72%와 4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데다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인터넷 산업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 텔레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업인 BDA중국 지사의 던칸 클라크(DunCan Clark)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터넷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2002년 베이징의 인터넷카페에서 발생한 화재로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 당국은 재오픈한 인터넷카페에서 미성년자들이 웹서핑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인터넷 카페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을 강화한 결과 미성년자들은 인터넷 카페 입장이 힘들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성장률 하락세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휴대폰 단문 메시지 서비스의 보급 확대다. 현재 3억 명에 달하는 중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SMS를 적극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왕이(19)씨는 고향에 있는 부모들과 연락을 취할 때 인터넷을 가끔 이용하기는 하지만 SMS가 훨씬 편리하다고 말한다. "부모님도 e 메일을 갖고 있지만 SMS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데 굳이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BDA 중국 지사의 인터넷 분석가인



후 웨이(Hu Wei) 역시 “휴대폰이 갖고 있는 즉시성과 휴대성이 중국인들을 매료시키면서 SMS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中, 휴대폰업체들 해외공략 박차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EE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율이 떨어지자 적정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발주자는 중국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닝보버드다. 이 회사 왕 징핑 최고 경영자(CEO)는 이윤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5년 안에 해외 매출이 중국 내 매출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며 “2005년까지 닝보버드가 국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휴대폰 업체들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닝보버드, TCL, 콘카 등 많은 휴대폰 공급업체들이 있다. 휴대폰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 하지만 이런 환경은 업체들에게는 약조건으로 작용해,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저마진, 고위험이라는 악순환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봄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매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 진출한 6개 외국 휴대폰 업체는 극심한 경쟁상황으로 처음 6달 동안 가격을 43% 인하했고, 1년 뒤 다시 28% 인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저가 제품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백색가전 업체들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고무되어 있다. 실제로 하이얼 그룹은 미국과 유럽의 저가 냉장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PC 생산업체인 레전드 그룹도 자사의 노트북 브랜드인 레노보를 앞세워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도 남미·동유럽·중동 지방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휴대폰 수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신식사업부는 지난 1, 2월 두 달 동안 휴대폰 수출은 10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4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분기에 닝보버드는 60만대, TCL은 28만대를 판매하는 등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왕은 “이러한 실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닝보버드의 목표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저가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품질보장이 우선이다. 도이치뱅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닝보버드, TCL, 이스트콤 등의 제품에서 품질불량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휴대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있다. 웨이브컴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선 중국 휴대폰 업체가 수년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충고했다.

### 한·일·대만, 반도체업계 메모리 증산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업계가 PC 및 디지털가전기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증산에 일제히 나서면서 3국간 투자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세계 1위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엘피다메모리가 이미 대형 투자를 밝힌 데 이어 대만의 4대 반도체업체들도 이에 대항해 100억 달러(11조원) 규모의 대형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다. 세계 메모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3국 업계의 잇따른 투자 증설은 반도체 사이클상 올해가 호황의 정점임을 감안할때 1~2년 후 공급과잉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투자 경쟁 촉발은 한국세와 일본세=삼성전자는 이달 초 자본 투자 계획을 당초 1조원 이상 늘려 투자 규모를 8조 9,4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D램 투자 계획은 3조 9,000억원에서 4조 9,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이 진정될 때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반도체업체들도 대만과 한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최근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잇따라 밝혔다. 마쓰시타는 1,300억엔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세계 5위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는 최첨단 3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4,000억엔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후지쯔도 생산량을 5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히타치와 NEC의 D램 부문이 통합된 엘피다는 5,000억엔을 들여 히로시마에 세계 최대 D램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일본업체들은 대만 및 한국업체들과는 달리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최근 디지털 가전과 휴대폰 등의 호황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추격하는 대만업체 = 대만에선 파워칩 세미컨덕터, 프로모스 테크놀로지스, 난야 테크놀로지, 윈본드 일렉트로닉스 등 메모리 전문 4개업체가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파워칩은 대구경 300mm 웨이퍼로 월간 최대 4만장의 생산능력을 지닌 공장을 대만 북부 신죽시에 신설한다. 오는 2006년부터 가동되는 이 공장에서는 또 회로선폭 100nm(나노미터, 나노=10억분의 1) 이하 최첨단 D램도 생산할 예정이다. 투자액은 21억 달러로 알려졌다. 프로모스는 45억 달러를 들여 대중시에 세계 최대 공장을 건설 중이다. 내년부터 양산 개시되는 이 공장에서 단계적으로 월 6만장까지 증강할 계획이다. 또 난야는 지난 달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와 합작해 도원현에 월 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향후 동일 규모의 공장 신설을 위해 22억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 윈본드도 15억 달러를 투자해 월 4만8,000장 규모의 신 공장을 건설 중이다.

◆시장 전망은 부정적 = 미국반도체공업회(SIA) 등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신장율이 디지털경기가 한풀 꺾히는 올해부터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3국 업체들의 증산 경쟁은 내년 이후 시장 악화와 이에 따른 업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 호주, 텔스트라 내년에 3G 도입계획

호주 최대 통신기업 텔스트라가 내년부터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아시아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보도했다.

AWSJ은 텔스트라가 홍콩 허치슨 암포아의 호주 법인과 제휴해 3G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텔스트라는 3G용 신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향후 4년간 9

~10억호주달러(미화6억4,000만~7억1,5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드 프리티 텔스트라 관리이사는 "단계적으로 3G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과 다른 기업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을 택하든 2005년에 3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텔스트라는 3G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기 전에 올해 12월경 2.5G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 IBM, 2분기 순익 17% 증가

IBM은 지난 6월말 끝난 2분기 결산에서 순익이 19억 9,000만달러(주당 1달러16센트)를 기록, 작년 동기의 17억1,000만달러(주당 97센트)보다 17% 늘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기업재무평가기관인 톰슨 파이낸셜이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 전망치(주당 1달러12센트)보다 4센트 많은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232억달러를 보였다. 이 중 IBM의 최대 사업부서인 '글로벌 서비스'는 전년보다 7% 증가한 113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하드웨어 분야가 74억달러,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35억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97억달러, 유럽·중동·아프리카가 75억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2억달러였다.

사무엘 팔미사노 IBM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컴퓨터 컨설팅 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로 2분기에 실적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 IBM, 미 해군에 20테라 슈퍼컴 공급

IBM이 최고 20테라플롭스(1테라플롭스는 1초에 1조회 연산 처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개발, 미 해군에 공급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크라켄(Kraken)'이라고 명명된 이 슈퍼컴퓨터는 미군에 설치된 슈퍼컴퓨터중 가장 빠른 제품이다. 스테니스 우주센터 내 해군 해양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인 이 슈퍼컴퓨터는 1억달러에 달하며 전쟁 시뮬레이션을 비롯해 기상 예측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368개의 강력한 유닉스 서버로 구성된 크라켄은 이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만(제품명 파워4)해도 64비트급이 3,000개나 된다. IBM의 한 관계자는 크라켄에 대해 "오는 11월 발표되는 슈퍼컴퓨터 500 리스트에 10위권안에 들어갈 만큼 성능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BM은 올해 상반기 슈퍼컴퓨터 500 리스트에 자사 제품을 224개나 올리면서 최고의 슈퍼컴퓨터 업체임을 과시한 바 있다.

### JVC, DVD리코더 결함

일본빅타(JVC)가 지난 23일 출시한 DVD리코더에 전원이 갑자기 끊기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보도했다.

JVC는 이 결함의 원인이 프로그램 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26일부터 출하를 정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정프로그램 CD를 배포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이 발생한 제품은 'DR-MX1'로 VHS비디오, HDD 등 3개 기능의 일체형이다. HDD 용량이 120GB으로 3기능 일체형으로는 마쓰시타전기산업 제품이나 샤프 제품(80GB)보다 커 평판이 좋다. ●